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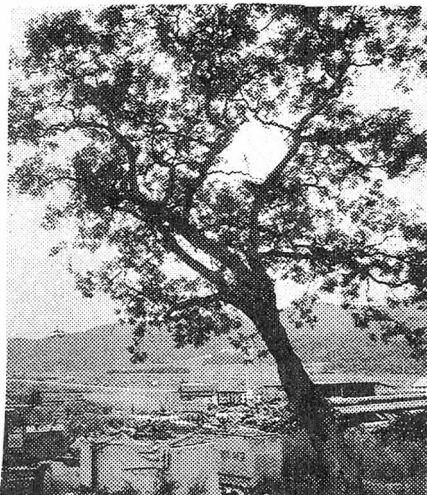
盆唐 守護樹의 슬픈運命

수령300年, 개발따라 보호수指定 해제

○…朝鮮時代는 官用材나 造船材를 育成하는 山林 保護制度로서 林分內에 「黃腸禁標」란 標識을 붙이고 柵을 둘러 철저히 保護한 松木禁養의 숲이 많았으나 標識石이 남아 있는 곳은 以南에서는 雉岳山뿐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이같은 사실은 나무를 기른다는 것이 어떤 政治形態下에서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端的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林政史의 視角뿐만 아니라 土着信仰의 對象으로서도 뿌리박혀 있다는 事實을 떨칠 수가 없다.

○…요즘 전국 곳곳에서 先人들이 피땀흘려 가꾸고 지켜온 마을의 守護樹인 老樹木들을 開發이란 美名으로 마구잡이로 베어내고 어떤 風致地區에선 劇藥을 몰래 나무에 注入, 枯死시킨후 開發허가를 받아내는 못된 手法도 쓴다고. 이런것을 알면서 許可한 官에 대한 處罰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지난 9월 15일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宅地로 각광받게 된 「盆唐의 수호신」으로 300여년간 住民들의 마음속에 뿌리박혀왔던 京畿道 城南市 盆唐洞 261의3 회화나무(檜木)가 졸속행정과 개발에 밀려 뿌리채 뽑힐 위기에 놓였다고. 保護樹로 指定돼 盆唐을 象徵해온 회화나무가 悲運을 만난것은 지난 6



▲ 보호수 지정이 해제된 성남시 분당 수호수인 3백년생 회화나무

月13日の 일. 분당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현位置가 학교부지로 확정되자 土開公은 경기도에 「보호수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道는 즉각 해제해버려 法的 保護의 울타리가 없어진 탓. 3代제 盆唐에 살았다는 주민 孫妙鉉씨(53·女)는 「회화나무 그늘 아래서 밥을 먹고 모내기를 하면 豊年이 든다는 전설이 전해져 왔다」면서 나무를 그대로 두고 학교부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城南市 녹지과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위치에 이식할 예정이나 소생가능성은 未知數라며 이전비용과 장비동원에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 말했다고. 한편 山林廳에선 「보호해제 樹木은 年中 두차례로 制限하고 절차도 엄격하다. 住宅조성지구로 지정된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최선을 다해 老巨樹로 生存토록 할 것이라」 했다.

安東선 700年된 은행나무도 옮겼는데…

무게 500屯, 뿌리돌림과 들어올리기作業

그런데 지난 87년 4월 慶北 安東郡 吉安面 龍溪洞 은행나무保存대책회의는 臨河댐(91년 준공)건설로 천연기념물 175호인 은행나무(수고: 37m, 흉고직경: 4.5m, 열매 30말)가 댐이 준공돼 滿水때는 9.7m가 침수된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위해 구수회의를 거듭끝에 뿌리돌림에 3년이 걸리고 500톤 무게의 이 巨木을 하루 30cm씩 60여일이 걸려 가까스로 옮겼는데 비용이 무려 11億원이나 들었다(매일신문 87.4.10 보도). 盆唐의 檜나무의 경우도 他山之石으로 臨河댐 은행나무移植 事例를 일찍 배웠더라면…(N)

明堂찾던 教授兄弟, 山蔘30뿌리캐

風水地理에 심취·白雲山 오르내리다

○…풍수지리학에 심취한 대학교수와 그의 동생이 할아버지의 명당을 찾아 산속을 헤매다 무려 30뿌리나 되는 산삼을 캐는 횡재를 해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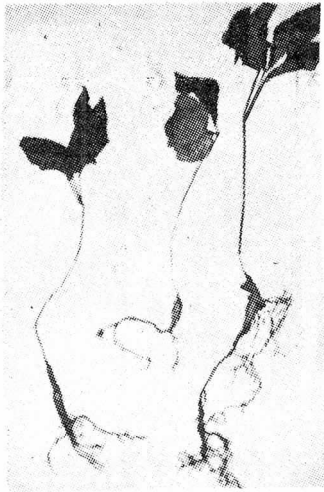
○…화제의 주인공은 光州C대 영문과교수 차모씨(46)와 양복점을 경영하는 그의 동생으로 이들은 지

난 8월17일 오후3시께 할아버지의 시신을 이장하기 위해 명당자리를 찾아다니다 光陽군에 있는 白雲山의 깊숙한 골짜기에서 산삼을 발견.(사진)

○...평소 풍수지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朴교수는 白雲山을 오르내리던중 갑자기 상기된 표정의 동생이 우뚝 선 채 귓속말로 산삼임을 알려주자, 강한 인삼냄새와 뿌리 옆에 큰 지렁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산삼임을 확인.

○...이날 캐낸 산삼은 몸통둘레 9.5cm, 길이 17.4cm, 무게 45.2g에 이르는 대형에서부터 1.5g 짜리까지의 30뿌리로 朴교수는 『전날 밤 많은 사람들이 쌀가마니를 집으로 가져오는 꿈을 꾸는데, 이날도 산행 도중 산토끼가 눈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점 등이, 산삼을 캐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할아버지의 영령이 작용한 것』이라고 흥분.

○...朴교수는 자신이 캐 산삼을 증풍에 시달리는 아버지께 고아드려 5일만에 완치케 했고, 할머니와 자식들에게도 모두 9뿌리를 삶아 복용토록 했는데 『나머지 21뿌리는 구매희망자가 나타나면 적당한 값에 팔 계획』이라고.(9.12. 전남일보)



▲ 朴씨 형제가 캐낸 山蔘의 일부

油類 전환에 밀린 屈指의 鳳鳴탄광

赤字幅에 못견뎌 44年만에 閉鑛

국내 굴지의 탄광인 聞慶鳳鳴탄광(대표 李範載)이

개광 44년만인 지난 9월11일 폐광됐다.

지난 47년 10월 現李東寧회장(86)이 日本人으로부터 광권을 인수받아 국내 굴지의 석탄광으로 개발, 현재 聞慶읍 北山면·虎溪면등 4천6백44ha의 면적에 31개 광구와 연간 석탄생산량은 90년 38만3천톤의 생산량을 보여온 鳳鳴탄광은 聞慶군내 전체 석탄생산량의 32%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鳳鳴은 근년들어 석탄의 질저하와 갱도의 심부화현상 및 유류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석탄가 인하 등으로 경영압박을 받아 지난 88년 10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89년 30억원, 90년 60억원으로 적자폭이 점점 커져왔다.(9.14. 매일경제)

흡연의 경제적 손실 총 2兆1천億 추산

의료비 부담 + 생명 단축 생산 손실

우리나라 남성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워 유발시키는 경제적 총비용은 88년 현재 화폐가격으로 질병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 1조2천5백74억원과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손실액 9천22억원등 2조1천5백96억원으로 추정됐다.

延世大 原州캠퍼스 보건과학대 李奎植교수는 22일 지난 88년 정기신체검사를 받은 공무원·사립학교 남성교원 피보험자중 흡연자 1만7천2백71명(57.3%)과 비흡연자 1만2천8백67명(42.7%)을 비교분석한 흡연인구의 의료비추가부담액과 경제기획원의 사망원인 통계에 나타난 흡연관련 사망자들의 조기사망으로 인한 노동력손실액을 합산한 논문 「흡연의 경제적 비용추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논문에 의하면 50대는 흡연율이 69.2%나 되고 소득액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어서 경제손실액(2천5백62억5천1백만원)과 흡연으로 인한 순수 의료비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금연운동은 50세이전에 시작해야 경제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李교수는 논문에서 단순한 금연운동을 지양하고 연령별 경제손실을 근거한 과학적 금연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